

# 잘 뚫린 직선도로 교통사고 더 위험

### 지난해 전남 사망사고 457명... 과속운전 대형사고 많아

전남 지역 지방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과속 등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다른 지역 도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고 다발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직선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과속 운전시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7일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1만190건으로, 사망·부상자는 각각 457명·1만7258명에 달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의 경우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각각 7번째와 4번째다. 하지만 교통사고 1000건 당 사망자 수는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전남지역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 수는 44.8명으로, 충남 50.9명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26.8명)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광주의 경우 13.2명꼴이다.

서울(10.3명)·대구(14.4명)·부산(15.5명) 등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

은 대도시는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 수가 적은 반면, 전남·충남 등 농촌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광역단체에 견줘 사망사고(교통사고 1000건당) 확률이 높은 데는 여수세계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F1 대회 등을 앞두고 도로망이 확충됐지만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직선 도로에서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한 요인인 것으로 이 의원측은 분석했다.

이행부도 올해 초 목포(백련로 사거리)·나주(산정 사거리)·순천(조례 사거리)·보성(동암 사거리) 등 전남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11곳을 선정 한 뒤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비 명목으로 19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구간은 편도 4차선 이상 도로로 야간에 교통량이 적어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윤석 의원은 "전남지역은 이용 인구 대비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과속과 졸음,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많다"며 "예방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조선대 구성원들이 17일 오후 신임이사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뒤, 정문을 나와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옛 경영진 복귀 저지...신임 이사 무효”

### 조선대 구성원 700여명 ‘선임 무효’ 결의대회... 이정남 총동창회장 병원 앞에서 항의집회도

조선대 구성원들이 이사회와 신임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 분회, 민주동우회,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등 700여명의 구성원들은 17일 오후 조선대 설립기념탑 앞에서 ‘구 경영진 복귀저지, 이사선임 무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결정되면서 조선대의 운영체제가 흔들리고, 이사회가 파국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사문제 해결을 위해 서명운동, 법정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한 구성원 모금운동을 포함 각 계각층에 사대 해결을 위해 호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기 종료 이사들의 연임 포기 ▲교육부의 강제적인 개방

이사선임 ▲이사회와 자체적인 이사 선임 결정 철회 ▲법과 정관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규정 준수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학내를 나와 학교 앞 동구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이사회에서 이사에 선임된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교수 비상총회를 갖는 한편 31일에는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조선인 행동하는 양심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조선대는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옛 경영진과의 연루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무효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지자체장 부인, 공무원 승진대가 금품

### 순천지청, 내사 착수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승진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검찰이 돈거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최근 수년간 승진자들의 계좌 조사가 나섰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피노키오’ 이천수

### 술집 폭행사건 거짓말

인천 남동경찰청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이천수(32)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천수는 지난 14일 새벽 0시 45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29)씨를 때리고 김씨의 휴대전화

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수는 구단을 통해 “폭행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옆에 와이프도 있는데 폭행을 했겠느냐”고 도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행뉴스

# 공사현장 크레인 사망 사고 잇따라

### 담양, 바스켓 타고 작업 중 추락 40대 숨져

### 고흥, 떨어진 대형 패널 머리에 맞아 40대 사망

전남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라 40대 인부 2명이 숨졌다. 17일 낮 12시 10분경 담양군 용면 ‘담양댐 뚝 놓이기 사업’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바스켓을 타고 교량 설치 작업에 나섰던 박모(46)씨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수심 20m 물에 빠졌다.

박씨는 현장에 있던 인부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에 의해 2시간 가량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고

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내 제어동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 심모(40)씨가 17m 높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대형 패널(길이 3m·무게 150kg)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용접공인 심씨가 건물 외벽에 용접할 패널을 작업 위치로 유도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간호사 채용 도와주겠다”

### 1000만원 받은 군의원 기소

공무원을 폭행, 물의를 빚은 군의원이 간호사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09년 신안군보건소 간호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A씨 아버지에게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의원은 A씨가 간호사 채용에서 탈락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간호사 채용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4원침



“명성에식장 법적권리 없다”  
광주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지법 민사 21부(박병철 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빛고을 문화관 1순회 후보자로 선정됐다 취소된 명성에식장이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체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성에식장은 시에 부지 매입절차 진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만취男 편의점서 “라면 내놔” 행패

○만취한 채 편의점에 들러 종업원에게 라면을 끊어 오라며 행패를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45)씨는 16일 밤 11시20분경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편의점에서 “라면에 물 부어 가져오라”며 종업원 나모(19)군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나군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라면이 먹고 싶어 편의점에 들렀는데, 종업원이 말도 안 듣고 못 먹게 한 다는 생각이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용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열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